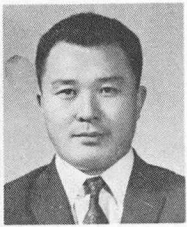


# 이달의 쏙점

## 건대생들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취재 : 이 원 복 기자



윤  
화  
중  
화  
장



박  
홍  
양  
지  
도  
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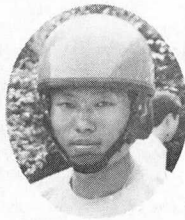
윤  
덕  
영  
사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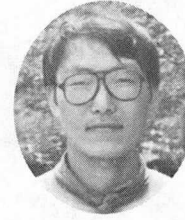
권  
운  
현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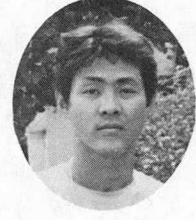
김  
세  
경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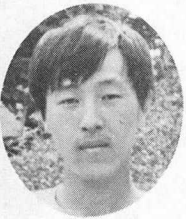
김  
오  
성  
근



박  
남  
순  
근



한  
우  
현  
근



박  
광  
은  
근



박  
교  
선  
근



구  
명  
서  
근



박  
태  
순  
근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이 주최하고 본회와 축산신보가 후원한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자전거 캠페인이 지난 7월 9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를 출발 무려 1천 3 백km 을 달려 8월 5일 건국대 축산대에 무사히 도착하므로써 27 박 28일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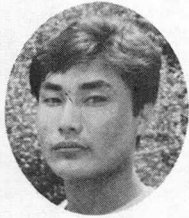
돈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체위향상과 양돈산업 발전의 장기적 터전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는 23명의 건국대학교 축산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전거 행렬을 통하여 돈육소비 홍보전단 40만부를 배포하는 한편, 「수입쇠고기 먹지 말고 국산 돼지고기 먹자」 「축산물 수입을 반대한다」 「공해속의 건강식품 맛

도 좋은 돼지고기」 등의 플랑카드를 자전거와 각종 차량에 부착, 전국을 일주하며 돈육소비 캠페인 행사를 가져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이들 행사단은 7월 9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에도 코믹 투우, 샄풀이 등의 행사와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 본회 노영한 전무, 건국대 윤하중·박홍양 교수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권운혁(축산4)군의 신고식과 함께 행렬단은 경기도 광주를 향해 폐달을 힘껏 밟아 나갔다.

경기도 광주시(지부장: 엄원섭)은 행렬단을 신장읍에서부터 에스코트하여 처음 기착지인 광주에서 비

# 자전거 캠페인 성공리에 마쳐



이  
원  
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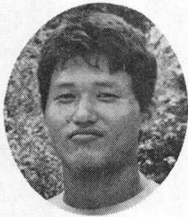
이  
영  
선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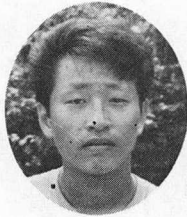
유  
지  
원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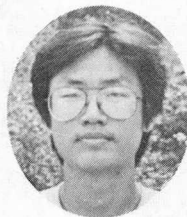
정  
천  
균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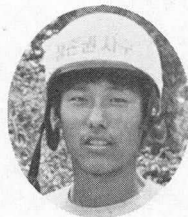
권  
태  
준  
군



김  
진  
분  
군



이  
상  
우  
군



이  
창  
익  
군



장  
명  
분  
군



차  
주  
환  
군



최  
선  
강  
군

\* 돈육소비 범국민운동  
자전거 캠페인에 참석  
한 학생들 (학년별로)

가 오는 중에도 홍보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며, 10일 이천지부(지부장: 박용각), 11일 충주·중원지부(지부장: 허헌)에서 돈육소비 홍보를 하고 12~14일에는 김천과 점촌을 거쳐 첫번째 휴식을 김천에서 취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대구에 도착하여 시식회, 가두캠페인 등의 다양한 홍보행사를 가졌는데,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조옥봉)는 보도기관의 열띤 취재가 이색적이었다. 또한 이런 취재는 MBC TV 7시뉴스에 방영되었고, 대구매일신보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16일 영천지부(지부장: 이광우), 17일 울산·울주지부(지부장: 성정표), 18일 양산지부(지부장: 방기조)

에서는 회원들의 많은 참석으로 돈육소비 행사가 무난히 진행될 수 있었다.

19일 부산에서 두번째의 휴식을 지낸 돈육소비 캠페인 행사단은 지금껏 퍼붓던 장마비를 뒤로 하고, 이제는 폭염과 싸우며 20일에 김해지부(지부장: 박철곤)에서 홍보를 가졌으며, 특히 김해지부의 신태식 이사는 전날 해운대에 들리 홍보대원들을 격려해 주는 깊은 성의까지 표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산지부(지부장: 안판영)에서 보도기관(KBS, MBC TV)의 열띤 취재 경쟁속에서 행사를 치렀으며, 21일 진주지부(지부장: 임한상)의 행사 중에는 지부회원들의 가족이 참석하여 또 다른 분위기를

속에서 돈육소비 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22일에 하동을 거쳐 23일 순천·승주지부(지부장 : 조길현), 24일 보성지부(지부장 : 임형석)에 들러 돈육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했고 보성지부의 박종면 고문은 저녁시간에 홍보대원을 격려 양돈인의 구수한 인심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25일에 장흥, 강진을 거쳐 26일에 목포지부(지부장 : 최채우)와 금성·나주지부(지부장 : 전재명)는 회원들의 경쟁적인 홍보 계획으로 대원들이 부담을 가질 정도였으며, 29일의 전남 광주지부(지부장 : 최희태)는 광주공원에서 플라카드를 부착한 후 전단을 배포하고 시식회를 개최하였다.

31일에는 전주·완주지부(지부장 : 류영빈)에 도착, 전북대학교 사물놀이 팀과 합류하여 남부시장, 코아 백화점에서 홍보를 하고, 7월의 마지막 날을 삼례천에서 야영으로 보냈다.

8월들어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려 대원들의 땀을 뻘뻘 흘릴 정도였으나, 8월 1일 이리·익산지부(지부장 : 이정열)의 철저한 홍보계획은 대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었고, 특히 차량 12대를 동원 획기적인 소비홍보 행사를 가졌다.

같은 날 캠페인단은 이리, 강경, 논산(지부장 : 이성우)를 거쳐 2일에는 대전지부(지부장 : 구가희), 공주지부(지부장 : 정일섭), 3일에는 천안·천원지부(지부장 : 송건섭)에서 홍보행사를 가진 후 4일 오전 11시에 평택지부(지부장 : 홍문표)에 도착할 수 있었다.

평택역 광장에서 실시된 돈육소비 행사는 본회 홍보부, 축산신보, 박홍양 교수가 참여했고, 특히 민정당 송탄·평택지구 권달수 의원이 직접 나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등 많은 격려를 해 주었다. 또한, 평택경찰서 박장영 경사도 적극적으로 가두캠페인에 참여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호감을 사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오산을 지나 수원으로 입성 수원성을 지날때 수원지부 이명복 경기도협의회장의 에스코트 배려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다. 시내 중심가의 차량을 완전히 통제시켜 중심도로를 지나면서 가두캠페인을

할 수 있었다.

수원역의 홍보행사를 가진 다음날 안양에서는 본회 노영한 전무와 박근식 가축위생연구소장이 직접 나와 돈육소비 홍보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는 조만간 안양지부를 설립할 예정인 안양 양돈농가 다수가 참여해 어느 지부 못지않은 협조를 하였다.

마지막 홍보를 끝낸 대원들은 제일 험난한 코스인 서울시내로 진입, 건국대학교로 가는 모습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듯 했다. 5일 오후 4시 건대에 도착, 박홍양 지도교수와 본회 노영한 전무에게 「충성」이란 구호와 함께 해단식을 한 이들은 대원들만 가지고 있는 성취감을 헬멧을 하늘로 날리면서 모든 즐거움과 괴로움들의 27박 28일의 긴 나날을 아쉬워 하며, 돈육소비 범국민 운동 자전거 캠페인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행사로 안성관군(축산가공 2)과 이영민군(수의 1)이 질병으로 중간 낙오되어 동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또한, 덕영종돈장의 윤덕영 사장은 부인과 딸 정인양을 지난 22일 경남 하동부터 합류, 이번 행사가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다.

한편, 이번 건대생들이 펼친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래의 양돈산업 주역이 될 축산대 학생들이 직접 돼지고기 소비홍보에 나섰다는 점과 실제 양돈산물을 생산하는 본회 회원들이 학생들과 공동으로 소비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는 점은 양돈사에 길이 남을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건대생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매년 이와같은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양돈업계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통조림 등 축산물 수입개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소비홍보활동을 벌여야 할 것 같다.

이번 행사는 준비과정이 짧고 첫 행사여서 진행에 문제점도 노출되었지만, 마지막까지 폭염과 장대비를 이겨내며 당초 계획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린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